

# 教育大學에 있어서의 圖書館教育

—公州教育大學을 中心으로—

元 鍾 麟

(公州教育大學校圖書館長)

## 《目 次》

1. 머릿 말 (구김살 없이 자란 어린이가 우리나라를 바로 이끈다)
2. 教育大學의 教育課程과 이삭줍기
3. 圖書館學을 파는 텐센트 스토어
  - (a) 圖書館教育의 前奏曲
  - (b) 圖書館教育이라는 一人의 오케스트라
  - (c) 教授의 人氣를 더는 課題物
  - (d) 點數모으는 최똥구리들(蛻蟬)
4. 서글픈 베아리
5. 맺는 말 (두이아저씨에게 面目세우다)

### 1. 머릿 말 (구김살 없이 자란 어린이가 우리나라를 바로 이끈다)

1962年은 우리나라 教育制度上 一大 變革의 해였다. 몇해 동안을 두고 初等敎員의 質的 向上을 목이 메이도록 외쳐오던 國民의 輿望이 무르익어 教育에 關한 臨時特例法에 根據한 國立學校設置令이 改定公布되었다. 이제 기다리던 教育大學이 오랜 鎮痛 끝에 師範學校의 舊殼을 벗고 드디어 世上에 태어나게 될것이다.

나라와 國民이 큰 關心을 가지고 지켜보는 가운데 教育大學은 첫 발을 내디디자 그동안 健全한 發展을 거듭하여 이미 세 世代의 헛병아리 敎師들이 教育大學의 名譽를 걸고 全國 坊坊 曲曲 敎職의 壯途에 올라 보람찬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나라의 앞날을 두 어깨에 걸머질 人材들을 길러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일터인데 이 무거운 짐을 將次 우리 教育大學生들이 맡고 나서야 한다고 생각할 때 새삼 그짐이 무겁고 벅찬것을 느끼는듯 싶다.

이 어려운 일을 勘耐하려면 첫째 그들은 누구보다도 겨레를 사랑하는 마음이 透徹해야 하고 民主的인 道義를 몸에 지녀야하며 튼튼한 實力을 길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여기서 말하는 教育大學生의 實力은 다른 大學生과 같이 깊은 學問을 研究해서 知識을 쌓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다. 幅 넓은 一般敎養을 바탕으로 하고 그 위에 初等敎師로서의 專門的인 敎養을 研

磨해서 그것을 通하여 時代에 副應하는 有能한 敎師로서의 內質的인 「힘」을 말 하는 것이다. 어린이들의 코를 잘 닦아주며 襁褓한 어린이의 먼지를 털어주고 어린이 世界에 알맞는 冊을 골라주어 아름다운 꿈을 되찾아주면서 그들의 가장 親切한 助力者가 되는 것이 바로 教育大學生의 實力이 아닐까 생각한다. 瑞西의 敎育者 페스탈로찌라는 令監은 貧困한 어린이들을 품안에 끌어안어 그들의 가장 가까운 벗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偉大한 人類의 스승이라고 世上 사람들이 모두 우러러보는 터이다.

教育은 國家의 大業이라 하는데 그 말의 바탕은 어린이들이 구김살없이 굳세고 옹바르게 자라서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야 한다는 뜻 일것이다.

지금 都鄙를 莫論하고 어린이들은 過重한 課業에 눌리고 시달려서蒼白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뜨이는데 이것이 막을 수 없는 社會의 風潮로 굳어져 가고 있으니 걱정스럽기만 하다.

이 꿈 잃은 어린이들에게 그림책을 안겨주고 지나간 偉人들의 모습도 살피게하고 童謠를 읽혀서 잃어버린 꿈과 노래를 되찾아주며 한 편으로는 코를 씻어 주고 먼지를 털어 주고 잘 다듬어서 이 나라의 새싹들이 티 없이 자라도록 힘 쓰지 않으면 우리가 장차 누구에게 무엇을 바랄 수 있을까? 教育大學生들의 짐이 무겁다는 緣由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 2. 教育大學의 教育課程과 이삭줍기

教育大學의 教育課程과 師範學校의 그것 사이에 있어서 크게 다른것은 教育大學에 있어서는 國民學校의 人敎科에 對한 研究를 따로 選擇課程으로 두었고 그 안에 또 「學校圖書館 運營」과 「視聽覺教育」이 들어 있어 그 內容이 새로운 教育思潮에 알맞는 進一步한 느낌이 든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가지 誤謬가 있다. 草創期의 教育大學 教育課程 審議委員들이 예컨대 美國 같은 先進 國家에서는 圖書館學과 視聽覺教育等 多樣한 分野가 날을 따라 發展하고 있는 것에 關心을 기울였음인지 이번 教育課程에 그것을 反映한 것은 우리나라

라 初等教育의 앞날을 爲하여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한걸음 더 나아가지 못해서 結果的으로 畸形兒를 낳고말은 것은 매우 可惜한 일이다. 「學校圖書館 運營」과 「視聽覺教育」은 部分的으로는 一脈이 通할런지 모르지만 全體的으로는 아주 다른 異質의인 學問의 分野인 것이다.

그런데 이 두 教科를 二學點으로 한데 묶어 놓은 教育大學의 教育課程은 마치 血統이 다른 두 아이가 같은 胎盤 속에 억지로 雙生하는 것과 같은 年센스가 되고 말았다. 이러한 條件에서 무엇이 나온다던 결국 畸形兒가 나올 수 밖에 없을것 같다.

이 두 教科中에서 學生이 任意로 어느 하나를 擇하는 學校도 있고 또는 一學點式 나눠서 履修하거나 學校選擇으로하여 그 中 하나를 學校들에게 課하는 學校도 있으니 教育大學의 圖書館教育은 하고있는 學校, 全然 안하고 있는 學校가 서로 얽혀서 結局 바람직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며 十人 十色으로 學校에 따라 다르다.

大體的인 調査에 依하면 全校生을 圖書館學으로 二學點을 송두리채 課하는 大學은 公州教大를 빼놓고는 別로 없는 것 같고 그 反對로 視聽覺教育만을 學校選擇으로 하는 大學이 數三校 餘他的 大學은 學生 任意選擇아니면 一學點式 나눠서 두 教科를 함께 課하고 있는 것 같다.

「學校圖書館運營」과 「視聽覺教育」의 두 教科가 모두 重要하다고 認定되었기 때문에 必須敎課와 內容에 있어서 꼭 같은 必須選擇으로 特惠를 받은 셈인데 結果的으로 重要하다는 뜻도 되고 不必要하다는 뜻도 되고 말았다.

獨自性を 살려서 二學點式 두 教科를 따로 떼어 놓으면 더 말할 것 없고 아니면 一學點式이라도 못을 박아 놓는 것이 두 教科가 모두 命脈이라도 維持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人的 資源에 隘路가 있다고 하겠지만 問題는 別途로 생각할 일이다.

草創期에 수고한 審議委員들을 굳이 할퀴고 뜯을 생각은 없지만 수고는 수고요 誤認는 誤認이기 때문에 앞으로 꼭 是正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教育大學 二個年間的 總學點 100學點中에서 「學校圖書館 運營」은 고작 많아서 二學點이요 그나마도 全然 못 얻는 學校도 있으니 圖書館 運營이나 學級文庫 運營, 讀書指導, 教材 教具의 活用等 山積한 問題들이 가로 놓여 있는 一線 國民學校에 그들을 어떻게 마음놓고 들여 보낼 것인지 不安스럽기만 하다.

다른 教科들은 學點이 많아서 地主집 秋收처럼 짧은 二年間的 農事(?) 나마 豐盛하게 收穫이 많은데 圖書館教育은 그 뒷목이나 보면서 이삭을 주어 모으는느

겁이다.

“밀레의 이삭줍기”를 바라보면 平和스럽고도 浪漫的이어서 詩情조차 느끼기도 하지만 다른 教科의 뒷목이나 보는 우리의 이삭줍기는 浪漫은커녕 落望만이 깃누를 뿐이다.

지난 10月 24日 全國 教育大學 圖書館長 會議가 서울에서 열렸을 때 圖書館教育 強化 問題를 全員의 意見을 모아 要路에 建議한 것은 매우 鼓舞的인 일이었으며 果然 그 울림이 얼마나 메아리쳐 갈런지 우리는 똑똑히 지켜보아야 하겠다.

### 3. 圖書館學을 파는 텐센트 스토어

우리 公州 教育大學에서는 多幸히 必須選擇 二學點을 모두 圖書館學으로 充當하고 있다는 것은 앞에서도 言及한 대로이다. 이것은 全國 12個 教育大學中에서도 極히 드문 例로 생각되는데 그렇다 해서 筆者가 이것을 대견하게 생각한다는 뜻이 아니라 教育大學의 圖書館教育이 너무도 無色하고 寒心스러워서 하는 말이다.

이제 차례를 따라 우리 大學의 教育內容을 簡略하게 紹介하겠는데 여러가지 苟且스런 通事情이나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 (a) 「圖書館教育」의 前奏曲

「오리엔테이션」은 圖書館教育의 前奏曲에 比喻할 수 있다.

합격의 感激이 아직 가지지않은 세 希望에 가슴이 부푼 新入生 360名이 한자리 모여서 눈을 반짝이고 있다.

다음에는 圖書館長의 차례임을 司會者가 알려준다. 「오리엔테이션」의 「프로그램」에는 「圖書館의 案內」로 되어 있다.

「여러분! 이 世上안에 보다 낫은 世界가 있다면 그것은 무슨 世界라고 생각합니까?」

學生들의 對答이 없는 것은 너무 質問이 唐突한 때 문인지도 모른다. 自問自答하는 수 밖에 없다. 「그것은 冊의 世界입니다 그 속에는 眞, 善, 美의 寶貨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圖書館은 永遠히 減하지 않는 슬기의 寶庫이며 圖書館의 貸出臺는 그 寶庫로 들어가는 門입니다.

黃金의 열쇠는 이 世上 모든 門을 열 수 있지만 이 寶庫의 門만은 黃金의 열쇠로도 맞지 않을 것입니다. 黃金보다 더욱 값진 讀書라는 이름의 열쇠만이 오직 이 門을 열 수 있을것입니다.」

序論을 끝내고 다음은 圖書館의 機能과 活動等을 說明하는 차례로 넘어간다.

「우리 圖書館은 教育課程을 가장 活動的으로 展開하는 學業 鍊磨의 廣場이다.

우리 圖書館은 情緒를 涵養하고 教養을 蓄積하는 人格 陶冶의 道場이다.

우리 圖書館은 大學生活에 餘裕와 潤澤을 주는 餘暇 善用的 殿堂이다」

끝으로 우리 圖書館의 諸規定을 油印物에 따라서 살을 부쳐가며 說明을 하고 卒業때까지 100卷 讀破를 함께 約束하고 나면 圖書館長앞으로 割愛된 40分間의 끝을 알리는 鐘소리가 캠퍼스의 靜寂을 깨트리며 울려 퍼진다.

(b) 圖書館教育이라는 一人의 오케스트라

우리 教育大學의 圖書館教育은 혼자서 學校圖書館의 機能도 演奏하고 讀書指導라는 喇叭도 불고 參考業務라는 絃樂器도 타야 한다. 마치 一人의 오케스트라와 같다. 그러니 소리가 鑑賞하나마나 單調롭고 열빠진 소리일것이 틀림없다. 리듬이나 톤이 아름다울 까닭이 없다. 學生들의 興味를 못 끄는것도 無理는 아니다.

우리 大學에서는 1學年의 第2學期課程 속에 圖書館學을 넣고 있다.

첫 時間에 學生들의 興味 檢査表와 讀書 調查 카아드가 쓰여지고 이어서 앞으로 다룰 教科 內容을 要約한 Syllabus 와 함께 한 學期 동안의 Assignment 도 미리 準備한 油印物에 依해서 說明 해 준다. 이 구석 저 구석에서 不滿이 터지는 소리가 들려 온다.

「教育大學이 아니라 宿題大學인가?」

事實 各 教科마다 競合하듯 쓰다져 나오는 課題物에 치어서 學生들은 숨이 막힐 지경이라 同情의 餘地는 있지만 그런 內色은 禁物이다. 도리혀 시치미를 떼는 餘裕를 잊지 말아야 한다.

「昨年 學生들은 이 두 배의 課題物을 냈어도 不平 한마디 없었는데 여러분은 무슨 不平이 그렇게 많지요?……」

來年에도 이 말을 그대로 써먹기 위해서 잘 記憶해 두어야 한다.

「昨年 學生들은……」라고.

다음 要因에서 보는것 처럼 우리 大學의 圖書館教育은 時間으로 따지면 겨우 20時間 나머지만밖에 안되는데 거기에도 2學期에는 觀察教育實習, 學林祭, 旅行等 各種 行事가 重疊되어서 例外없이 몇 時間은 빠질 것을 覺悟해야 한다. 結局 이것 저것 빼고 나면 쥐 꼬리만한 時間밖에 안남는다. 그렇다고 內容을 뺄 수도 없어 走馬看山格이어나마 한번씩은 훑어가야하기 때문에 넓게 얇게 다루다 보면 마치 美國 큰 都市의 豪華로운 百貨店 툼바구니에 끼어 있는 초라한 텐센트 스토어 (10¢ store)에서 이것 저것 싸구려 商品만 팔다 마는 것 같아서 華麗한 物品만 파는 百貨店들이 불어올때가 많다.

이러한 豪華스러운 百貨店에 比喩할 수 있는 四年制

大學의 圖書館學科나 正規 司書教師 講習會에서 처럼 한 單元을 가지고 50餘時間이나 주무를 수 있는 奢侈는 못 누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圖書館學 全體에 걸쳐서 50時間 程度의 時間만이라도 確保한다면 實習도 하고 다른 圖書館의 見學도 하고 때로는 보고 들은 外國 圖書館의 餘談도 심심찮게 늘어놓을 수 있을 터인데 “20時間”이라는 재갈을 물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그저 아득한 道標만 바라보며 한눈 팔 새 없이 마음을 매질할 수 밖에 없다. 한참 졸다름질 쳤는데도 어인해는 저물었고 갈길은 멀다. 그래서 해마다 끝없는 旅路에서 올해도 못다 이룬 道標를 원망스럽게 바라보며 발거름을 돌릴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大學의 半밖에 時間이 못 미치고 있는 다른 教育大學들의 境遇를 도리켜보면 그래도 우리의 立場을 부럽다고 할터이니 於是乎 쓴 웃음만 나온다.

다음에 우리 大學의 圖書館教育의 概要를 적고 國民學校의 教育內容과 連結시키며 重點의으로 다루는 部分만을 뒤에 附錄한다.

學校圖書館運營 教授要因 (1學年 2學期)  
(公州教育大學)

月	週別	單元	內 容	時 間	備考
9 月	1	1	學校圖書館의 機能과 活動 a) 奉仕機關 b) 教育機關 c) 資料센터 d) 讀書센터 e) 레크레이션 센터	2	
		2	學校圖書館의 人的 構成 a) 圖書館長 b) 司書 및 司書教師 c) 事務員 d) 學生圖書委員 e) 圖書館內의 事務組織과 機能	2	
	3	3	學校圖書館의 施設과 經費 a) 建物 b) 備品 c) 經費	2	
		4	學校圖書館의 資料 a) 圖書資料 b) 非圖書資料	2	
1	1	5	學校圖書館資料의 整理 a) 圖書의 受入 b) 圖書의 分類 c) 圖書의 機械的인 裝備	8	

學習의 比較 (教育實務 參考)

10	}		d) 圖書의 登錄 e) 目錄記入 f) 目錄 카아드와 圖書의 排列 g) 圖書의 保存과 除籍 h) 定期刊行物의 整理 i) 視聽覺資料의 整理	
月		4		
11	}	1	中間評價	1
		1	6 學校圖書館資料의 運用 a) 參考業務 2 b) 資料의 閱覽과 貸出	2
	2	7 學校圖書館의 奉仕 a) 圖書 및 圖書館의 利用指導 b) 學校圖書館奉仕의 實際 c) 學校圖書館의 統計 d) 學校圖書館의 規則	4	
月	}	4		
4		8 圖書의 修理	1	
12	}	1	9 學校圖書館의 讀書指導 a) 讀書指導의 內容 b) 讀書指導의 目標 c) 讀書指導의 問題 d) 讀後處理 e) 讀書指導의 評價 f) 讀書問題兒의 指導	3
		2		
	2	10 學級文庫의 運營 a) 學級文庫의 施設 b) 學級文庫의 資料 c) 學級文庫의 運營 d) 學級文庫의 活用	1	
	3			
月	}	3	學期末評價	1
		總時間數	29	

낯은 學習	새로운 學習
① 他律的이다 ② 注入式이다 ③ 知識의 論理的 體系를 重視한다 ④ 講義中心, 教科書中心이다 ⑤ 個人的 孤立的이다 ⑥ 分科的 分裂的이다 ⑦ 劃一的이다 +⑧ 教授한다	① 自律的 自發的이다 ② 啓發的이다 ③ 學習者의 心理的 動機와 興味를 重視한다 ④ 觀察 表現 調査 見學 實驗中心이다 ⑤ 社會的 共同的이다 ⑥ 綜合的 統一的이다 ⑦ 個性伸張의 個人教育이다 +⑧ 指導한다
(解答) 生活에 쓸모없는 知識 獲得에만 有効하다	(解答) 生活에 도움을 주어 有能한 生活人을 기르는데 도움을 준다

學習訓

- ① 가르치지 말고 도와주어라
- ② 끌고가지 말고 밀어주어라
- ③ 의우지 말고 理解시켜라

學習銘

- ① 말보다 資料                      ② 理論보다 示範
- ③ 技術보다 誠意                    ④ 抽象보다 經驗
- ⑤ 知識보다 生活

單元 2. 學校圖書館의 人的構成

教育大學 卒業生中에는 農村 國民學校에서 奉職하게 되는 境遇가 많다. 農村에서는 文化를 吸收할 수 있는 機關이 極히 드물다. 그 地方의 國民學校 圖書館이 앞장서서 學父兄, 姉母, 其他 地域社會 人士와 紐帶를 맺고 圖書館의 門戶를 開放하여 어린이들과 더불어 地域社會에까지 奉仕의 領域을 擴大하는 것이 좋다. 圖書館의 發展을 爲하여 그 분들의 協力이 있을 것이다.

單元 3. 學校圖書館의 施設과 經費

精誠과 熱意없이는 圖書館은 이룩할 수 없는 것이다. 豪華로운 建物이나 施設이 저절로 골터 들어올 때까지 팔장을 끼고 기다릴 수는 없다. 낯은 倉庫를 뜯어고치고 覆道를 막고 흙벽돌을 박아서라도 于先 讀書施設을 마련하고 보아야한다. 休紙를 뭉고 빈병을 걸고 버이삭을 줍고 폐지를 먹이고 實習地를 일구어서 책을 사들이도록하자. 이 精誠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單元 4. 學校圖書館의 資料

圖書가 誕生되기까지의 人類의 偉大한 발자취를 살펴 보며 印刷術의 發達過程을 더듬어서 冊의 尊貴性을 굳게 認識시키고 讀書가 民主化된 오늘날, 이 貴重한 冊을 다루는 圖書館人의 榮光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색인

單元 1. 學校圖書館의 機能과 活動

學校圖書館이 새로운 教育을 뒷받침하는 重要한 資料 센터라는 點을 強調하기 爲하여 다음 表에 依해서 낯은 學習指導와 새로운 學習指導를 比較한다.

새로운 學習指導에는 多樣한 資料들 例컨대 學習參考書를 비롯한 많은 圖書資料와 非圖書資料들이 必要不可缺하다는 것을 認識시킨다. 學習訓, 學習銘을 만들어서 함께 硯쳐보는 것은 앞으로 그들의 敎職生活에서 마음에 색여될 일이기 때문이다.

다. 非圖書資料中에서는 費用이 안들고 直接 教師들의 손으로 만들 수 있는 簡易教具, 標本, 掛圖, 그림資料等に 重點을 두고 機材의 操作等은 放課後의 餘暇나 自由時間을 利用하도록 한다.

#### 單元 5. 學校圖書館資料의 整理

資料는 簡素하게 能率의으로 整理하며 國民學校에 適合한 方法을 適用한다. 整理 過程이 너무 繁雜하면 時間에 쫓기는 國民學校 教師에게는 圖書館 業務가 너무 過重한 負擔이 된다.

#### 單元 6. 學校圖書館資料의 運用

參考業務는 圖書館의 가장 甘美로운 果實을 거두는 일이다. 그 果實이 때로는 冊속에 있고 때로는 그림속에, 小冊子속에, 索引속에, 크립핑속에 그리고 「冊의 冊」인 各種 出版目錄속에 있다.

國民學校의 圖書館擔當者는 어린이들의 마음의 길잡이, 슬기의 案内者가 되어주며 보다 넓은 奉仕에 參與하는 것이다.

#### 單元 7. 學校圖書館의 奉仕

揭示板을 魅力있게 꾸며서 마음의 糧食에 굶주린 어린이들을 圖書館으로 끌어 드리고 學習單元 圖書目錄을 作成하여 學習의 引導者가 되어주며 統計를 자주내서 未來를 훌륭하게 計劃하는 것들은 多様な 學校圖書館의 奉仕中에서 重要한 部分이 될 것이다.

#### 單元 8. 圖書의 修理

司書教師는 修理를 要하는 冊을 機敏하게 發見하여야 한다. 올바른 資料로써 올바르게 冊 修理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滿足스럽고 보람있는 일이다.

#### 單元 9. 學校圖書館에 있어서의 讀書指導

國民學校 어린이때부터 讀書習慣을 길러주는 것은 그들이 將來 훌륭한 讀書家가 되는 契機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어릴 때 讀書에 눈이 뜬 조그만 삶에 대한 歡喜의 싹(芽)이 차차 자라서 뒷날 讀書로서 人格을 陶冶하고 事物의 理解를 깊게 하며 知識을 넓히고 感情의 發達을 促進하여 보다 훌륭한 行動에 對한 經驗을 쌓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讀書의 內容을 統合해서 思想에 미치고 그 思想에 對한 批判作用도 할 수 있기 때문에 教育의 첫 段階인 國民學校에서 讀書의 올바른 基礎가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

#### 單元 10 學級文庫의 運用

二部制 三部制를 하는 都市의 學校에서는 教室을 비워서 圖書館을 마련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實情에 놓여 있는 學校에서는 學級文庫라도 만들지 않으면 어린이들이 讀書生活하고는 아주 因緣이 멀어질런지 모른다. 아름답게 꾸며놓은 學校文庫는 어린이들의 마음을 언제나 끊임없이 끌어다

니는 教室안의 가장 人氣있는 場所가 될 것이다.

#### (c) 教授의 人氣를 더는 課題物

어느 大學에서 어떤 教授가 가장 人氣가 있느냐고 물어 보았다. 여러가지 對答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 中에서도 講義時間에 늦게 들어와서 일찍 나가는 教授가 斷然 人氣를 얻는 것 같았다. 다음은 길에서 만나서 茶나 곰탕 잘 사주는 教授, 돈 잘 빌려주는 教授, 試驗을 쉽게 내는 教授, 學生들 이름 잘 記憶해주는 教授, 課題物 안내는 教授의 차례로 되어 있다. 그러고 보나 나는 다른것에는 自信이 있는데 끝의 項目에서 落第教授다.

한 學期동안 學生들에게 課해지는 나의 課題物은 좀 많다. 그 해의 計劃에 따라서 多少 伸縮性이 있기는 하지만 좀 많은게 事實이다. 그 「레퍼트」는 대개 아래와 같다.

#### ① 國民學校 讀書 施設 調査

大概 出身 國民學校나 隣近 國民學校의 讀書施設을 調査하여 提出한다.

이 調査는 우리가 國民學校의 實態를 把握하는 資料가 된다. 教育大學에서는 그 地方의 國民學校에 對하여 잘 알아둘 必要가 있다.

#### ② 讀書日記

事業家는 資本金이 불어 가는데 보람을 느끼지만 學究生活을 하는 敎職者들은 읽은 冊이 불어 가는 것에 가장 보람을 느껴야 할 것이다. 한장 두장 讀書日誌가 불어가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이 아닐수 없다 學生들에게 讀後感을 記錄하는 習性을 길러주기 위하여 讀書日誌를 記錄하도록 勸獎하고 있다.

#### ③ 揭示板

揭示板은 圖書館의 案内者이다. 한班 學生을 5名씩 8分圓으로 나눠서 한班이 1週日間씩 揭示板을 만들어서 圖書館앞 複道에 揭示한다. 아홉班이 차례로 揭示를 끝내려면 9週日이 걸린다. 讀書를 勸獎하는 內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圖書館을 爲한 宣傳도 兼해서 一石二鳥의 收獲이 되는 셈이다.

#### ④ 簡易教具 및 學習資料

教具, 標本, 模型, 掛圖, 蒐集物等 한 學生이 一點式 내는데 規模가 큰 것은 共同作品으로 하여도 無妨하다. 提出된 作品은 視聽覺室의 展示櫃에 保存되고 必要에 따라 學生이나 教授에게 貸與된다. 教育實習동안에는 이 資料들이 人氣를 獨點하고 이제야 그들이 땀 흘려 만든 보람을 切實하게 느낀다. 어떤것은 「아이디어」가 嶄新한 兪모 있는 作品도 가끔 눈에 띄어 반가운 마음이 든다. 簡單한 教具를 自身의 손으로 만드는 것은 앞 날의 그들의 生活을 爲하여도 좋은 보탬이 될 것이다.

⑤ 그림 및 寫眞資料

그림과 寫眞은 萬人에 共通되는 言語를 가지고 있다. 돈 안드리고 얻을 수 있는 所重한 學習資料이다.

한 사람이 두장씩 낸다. 臺紙는 學校에서 提供하고 學生들은 그림만 求하고 所定의 樣式에 따라서 「마운팅」하면 된다. 이 資料는 評價가 끝난 다음에는 圖書館의 파일資料에 編入되어 共同의 財産이 된다.

(d) 點數모으는 쇠똥구리들

評價는 確實히 學生들에게는 至極히 不自由스러운 拷問이다. 이때문에 學生들은 꼬베에 끌려서 學校가 이끄는 方向으로 따라갈 수 밖에 없다.

體軀가 可히 씨름꾼처럼 우람하고 아무리 性質이 썩 썩한 學生이라도 教育大學에 들어와서 한 學期만 鍛鍊 받고 나면 갈게 빠진 「삼손」처럼 柔順하기가 꼭 羊같으 다. 그래서 評價에 나타난 한點 한點에도 神經을 쓰며 點數 모으는 쇠똥구리가 되고 만다. 그 많은 課題物과 筆答考査 올개 檢閱等에 시달려서 血氣와 精力은 속에서 凝固되고 마른지도 모른다.

評價는 中間考査와 學期末考査 그리고 課題物로 處理되는데 「아이템」을 되도록 많이 만들어서 誤診이 없도록 留意한다.

評價의 比率와 內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比率

筆答考査	30%
簡易教具	30%
揭示板	20%
그림과, 寫眞資料	20%
計	100%

內容

a. 簡易教具 및 學習資料

內容	評價			
	E(Excellent)	G(Good)	F(Fair)	D(Denial)
創意性				
實用性				
誠實性				
作品의 模規				

b. 揭示板

計 劃				
排 列				
配 色				
表 題				

c. 그림과 寫眞資料

資料의 妥當度				
마운팅				
標 題				
色 彩				

d. 綜合評價

筆答考査				
簡易教具				
揭示板				
그림資料				

4. 서글픈 메아리

評價에 나타난 教育의 結果와 아울러 學生들의 心眼에 비친 圖書館教育의 自由스러운 메아리를 들어 보는 것도 決코 無意味한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음 調査는 137名에게 質問紙法을 써서 無記名으로 얻은 解答이다. 재미있게 가르쳤는데도 「재미없다」가 「재미있다」의 두배도 넘으니 이거 정말 「서글픈 메아리」가 아닌가!

(a) 圖書館學 二學點은

많다	29名
적당하다	97名
부족하다	11名

(b) 圖書館 二學點만 履修하면 國民學校에서 圖書館 運營을

잘 할 수 있다	8名
보통은 할 수 있다	95名
할 수 없다	34名

(c) 圖書館學은 우리 敎大學生들에게

매우 유익하다	76名
보통이다	51名
별로 유익하지 못하다	10名

(d) 圖書館學은

매우 재미있다	17名
보통이다	83名
별로 재미없다	36名

(e) 圖書館學의 課題物은

많다	50名
적당하다	83名
적다	4名

(f) 圖書館學의 課題物은 國民學校에서

유익할것이다	74名
보통이다	39名
별도움이없을것이다	23名

- (g) 國民學校에는 圖書館이  
     꼭 있어야 한다      117名  
     있는것이 좋다      14〃  
     없어도 좋다      6〃

5. 맺는 말 (뉴이 아저씨께 드리는 글)

圖書館學의 祖宗은 뉴이아저씨 당신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師範學校教師로 있을 때 일입니다. Y라는 圖書係를 맡고있던 國語教師가 延世大學校의 司書教師 講習會에 다녀오더니 英語를 몰라 애먹었다면서 다시는 안간다고 나자빠집니다. 새로운 學問이라는데 어쩐지 마음이 끌려서 내가 가겠다고 지금은 新設 中學校의 校長으로 昇進한 C校監의 열구리를 쫓아서 講을 드렸더니 茶한잔 산다는 條件으로 快히 承諾하더이다.

이것이 契機가 되어서 저는 그 뒤부터 圖書館學에

발을 드러놓게 되었고 1年後에는 운수가 좋아서 정말로 운수가 좋아서 아저씨 나라에도 잠시동안 다녀올 機會가 있었습니다. 그것 뿐이겠습니까? 지금은 圖書館學이 아니었으면 염두도 못낼 教育大學 教授라는 분수에 넘치는 職脚까지 하나 얻었습니다고려. 그래서 저는 요즘 얼굴도 모르는 아저씨에게 항상 고마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대학을 나와서 國民學校에 就職을 하자 圖書館도 맡고 학급문고도 만들면서 정성껏 아주 정성껏 어린이들 책 읽는 뒤를 잘 보살펴주고 있다는 소식을 가끔 듣습니다.

제가 뿌린 씨앗들이 모두 빈 낱질만은 아닌가 싶어 보람을 느낄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저씨께 다소나마 報답이 될런지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 도협 일보 원고 모집

本報에 掲載할 原稿를 會員諸位에게 널리 募集하오니 다음과 같은 內容의 論文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圖書館學 및 事業에 關한 論文.
2. 圖書館界의 뉴우스, 人事消息, 其他 消息,
3. 圖書館과 相關되는 隨筆 (200字 原稿紙 30枚 內外).
4. 其他 本報에 掲載할 수 있는 內容의 것.

(磨勘은 每月 10日 限)

編 輯 室

### 廣 告

韓國圖書館關係文獻目錄 (1921—1961) 高厚錫·洪淳英 編

韓國雜誌目錄 (1896—1945) 崔荀子 編

梨花女子大學校 出版部 發行  
 (208p 菊版 洋裝 更紙 값 350원)

이 目錄은 梨花女大圖書館學科 大學院 卒業生들에 依하여 編輯된 것으로 解放前後 40年間 여러곳에 散在한 定期間行物 記事中 圖書館關係文獻을 蒐集目錄化하였고 解放前 50年間의 韓國에서 發刊된 雜誌의 目錄을 收錄한 것이다.  
 (販賣處 梨大圖書館)